

[ 국내 주식 투자전략 ]

# 본격적인 이벤트 노출 구간

이준희, 02)768-7988, ejuny@nhqv.com



## KOSPI, 2 주 연속 상승하며 1,980 선 회복

### KOSPI, 2주 연속 상승세

지난주 KOSPI는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1,980선을 회복하였다. 주 초반 중국 ADR 잔여분(50%)의 MSCI EM지수 편입 이슈로 하락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었으나, 이미 알려진 이벤트였다는 점에서 과급력은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

### 대외 이벤트에 대한 경계심 여전

하지만, 주 후반 OPEC회의에서 감산합의 실패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6월 FOMC회의, 중국 A주 MSCI 신흥국 지수 편입 결정, 그리고 브렉시트 관련 국민투표 등 투자심리에 굴곡을 만들 대외 이벤트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승탄력은 제한적인 모습이었다.

향후 이벤트 소화 과정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국내 증시는 당분간 변동성 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자료: QV HTS, NH투자증권 WM리서치부

6월 주요 이벤트 일정(현지시간 기준)	
날짜	이벤트
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14-15일	미국 6월 FOMC회의
15-16일	일본 BOJ회의
23일	브렉시트 투표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WM리서치부

## 미국 연준은 6월에 금리를 올릴 것인가?

### 6월 FOMC회의에 대한 경계심 고조

무엇보다 6월 FOMC회의(14~15일, 현지시간)를 일주일여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망심리가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연준위원들이 매파적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시장의 경계심을 자극하고 있는데다, 경제지표들도 호조세를 보이며 6월 FOMC회의를 목전에 두고 금리인상에 대한 시장 우려가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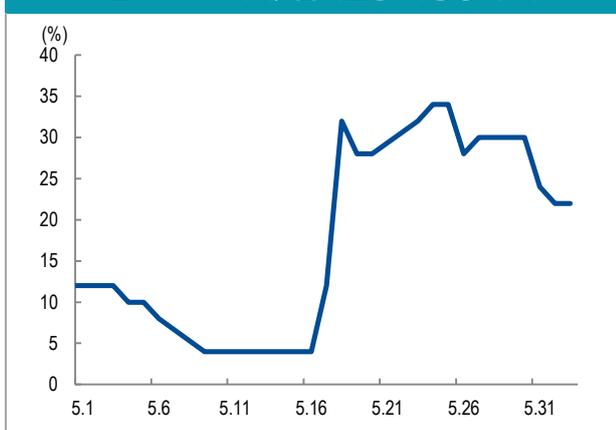
### 실제 금리인상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

그러나, 연준이 6월에 당장 금리인상을 단행하기는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6월 FOMC회의 일주일 뒤 영국의 브렉시트 관련 국민투표가 예정되어 있고, 5월 중순 이후 급등세를 보이던 6월 금리인상 확률도 하향조정되며 22% 수준(6/2일 기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엘런 의장이 '수개월 내 금리인상이 적절하다'고 언급하면서 6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자극했지만, 금융시장의 주요 리스크 지표들(VIX, Macro Risk Index, EMBI 스프레드 등)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글로벌 증시는 오히려 반등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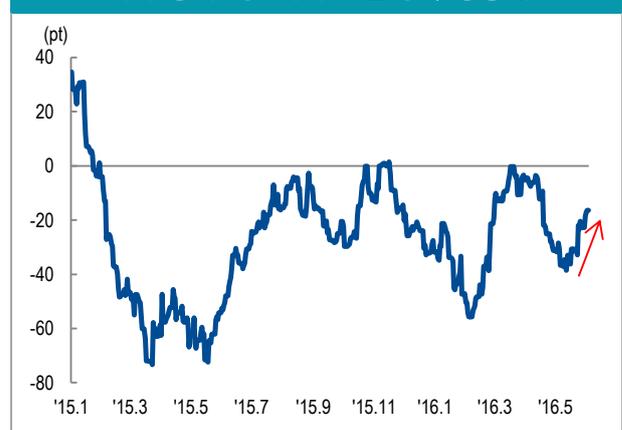
한편으로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다는 것은 경기개선에 대한 자신감의 표출이라는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증시가 조정양상을 보인 이유 중

6월 FOMC회의, 금리인상 가능성 추이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WM리서치부

미국 경제 서프라이즈 인덱스, 상승세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WM리서치부

## [ 국내 주식 투자전략 ]

하나로 미국 경기회복에 대한 신뢰도 저하를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US Economic Surprise Index)가 반등양상을 이어가면서 경기에 대한 신뢰도가 회복되고 있는 중이다.

### 미국의 경기회복에 포커스

결론적으로 이번 FOMC회의에서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금리인상을 단행하더라도 이는 미국 경기회복에 대한 연준의 자신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 변동성 확대 시 매수관점의 대응전략

### 대외 불확실성 일정부분 선반영 가능성

국내 증시가 본격적으로 대외 이벤트 구간에 진입한다는 점에서 일시적인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다만,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 유입과 외국인 순매수 등 KOSPI가 비교적 양호한 수급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다, 지난 1일자 WM Daily 국내 주식 투자전략 '6월 증시, 노출된 이벤트의 연속'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6월 대외 이벤트들 역시 이미 증시에 일정 부분 선반영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차츰 안정을 찾아갈 것에 무게가 실린다.

### 단계적인 주식비중 확대 전략

여기에 하반기 물가상승과 경기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6월 이벤트로 인한 변동성 확대 시 단계적으로 주식비중을 확대해 가는 전략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밸류에이션 수준과 이익모멘텀 강화 측면에서 글로벌 증시 내 KOSPI의 상대적인 매력도가 부각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